

尹, 러 대표단 면전서 “러-북 군사협력 즉각중단 강력촉구”

G20 정상회의 참석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尹 발언 이어 日·EU·캐나다·호주 대표도 러-우 전쟁, 러-북 군사협력 비판尹 “기아·빈곤 해결 힘 모아야” 호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 비판했다. 또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연합(GAAHP)에도 가입하며, G20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제1세션에 참석해 10번째 연사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행동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 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발언 직후였다. 즉 윤 대통령은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상은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와 같이 묻는 형식으로 반어법을 통해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

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정작 러시아에서 온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 전쟁에 대해서는 일관반구도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 장관은 전쟁 얘기는 쏙 빼고 세상 한가하고 편안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기후변화나 개발도상국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피하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상은 꽤 직설적으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인도적 위기’, ‘전쟁의 새 국면’, ‘정당하지 못

한 전쟁’과 같은 용어와 예시를 쓰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거론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때문에 오전에 시작한 제1세션은 이같은 격론에 더해 추가 초청국들의 발언이 겹치면서 예정된 시간을 두 시간 넘긴 오후에야 끝났다. 이어진 오후 제2세션에서도 독일, 일본 등 정상들이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계속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대한민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변영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G20은 이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으로, 세션1에서는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의제로 삼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의 GAAHP 가입을 선언했다.

또 “한국은 GAAHP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해 5만톤(t)에서 올해 10만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톤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아·빈곤 퇴치는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어렵다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성장 견인책으로 ▲G20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성장동력 창출 지원 ▲개발도상국의 구조개혁 및 재정 혁신 ▲규범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성장 지원 노력과 향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1면 ‘상출집단 TRS...’서 계속

내년 집값 상승세 주춤... 지역별 양극화 더 심화

NH투자증권 “시장 정체 국면” 공급 부족하에 신축 선호현상 청약경쟁률 24.8대13년래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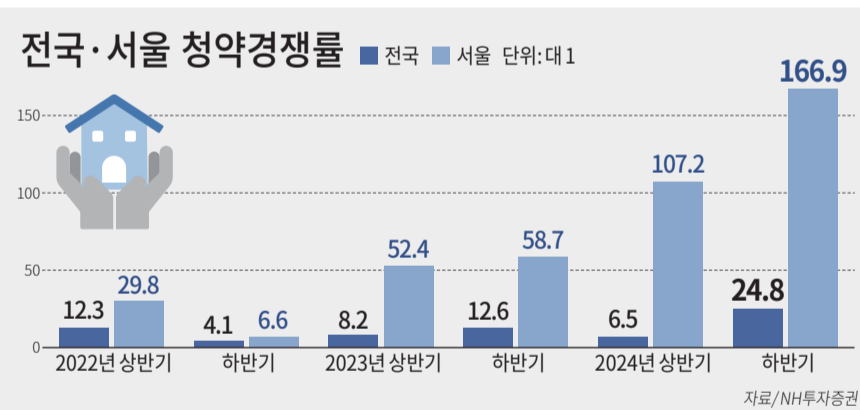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 가운데 내년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부족이 예고되면서 집값 상승과 하락 지역이 상존하는 차별화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19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올해 4분기 3.3㎡당 전국 1617만원으로 전 고점 기준 91% 수준, 서울은 3828만원으로 98% 수준을 회복했다.

전세시장은 회복세가 더 빨랐다.

9월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전국 949만원으로 전 고점과 비슷한 수준이며, 서울은 1864만원으로 이미 전 고점을 넘어섰다.

정보원 NH투자증권 택스(Tax)센



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올해 갈아타기 수요가 7월 정점을 찍으며 상급지와 정비사업장의 가격이 반등하고 신고가 거래가 증가했다”며 “격차는 지역 간은 물론 동일 지역 내에서도 나타나며 신·구축에 따라 차별화 장세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연초 대비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로 8.25%며 ▲성동구 8.22% ▲송파구 8.17% ▲용

산구 5.77% ▲마포구 5.74% 순이다.

부동산 시장이 정체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흐름이 될지는 내년 1분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대출규제는 강화됐고, 매도호가도 높아진 상황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지역이 상존하는 차별화·국지화 흐름이 더 가속되는 가운데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도 커졌지만 전월세가격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감, 선호 지역의 공급부족이라는 상승 요인이 하락 요인보다 우선 작용하며 국지적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누계 전국 인허가 물량은 약 19만1000호다. 2021~2023년 동기 인허가 물량을 밑돈다. 서울의 경우 약 2만2000호로 2022~2023년보다는 많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공급은 부족한 반면 신축 선호 현상은 이어지면서 올 하반기 청약 경쟁률은 24.8대 1로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경쟁률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청약 경쟁률은 강남3구가 279대 1, 그 외 서울지역은 62대 1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 포함

또 현재 상출집단이 TRS를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런 실태를 반영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적 성격을 지닌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탈법행위에 해당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정상적 TRS 등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준을 설계했다. 설명이다.

고시 제정안은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해당하지 않는’ 유형까지 열거했고, 각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제시했다. 또 시장 혼란 등 해소를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상출집단이 새롭게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 행위에 대한 역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가계빚 1914조... 전분기 보다 18조 늘었다

한은, 3분기 가계신용 통계 예금은행 대출 75% ‘주담대’

우리나라 가계빚이 지난 3분기(7~9월)에만 18조원 가까이 불었다. 주택매매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로 인해 예금은행 대출 중 75%는 주담대에 쏠렸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8000억원으로 2분기 대비 18조원 증가했다.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36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에

결계 전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지표로, 포괄적인 가계 빚을 의미한다.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 잔액은 179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16조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주담대 잔액이 1112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9조4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가 늘었다”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해 ▲1분기 5만9000호 ▲2분기 8만3000호 ▲3분기 9조6000호로 증가했다. 주택매매 이후 약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를 받는 만큼 2분기와 3분기에 늘어난 주택매매거래량이 주담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